

연중 제15주일

기도서	392면 (C해)
제1독서 : 신 명	30, 10-14
제2독서 : 골 로	1, 15-20
복 음 : 루 가	10, 25-37

숨 정 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루가 10, 37b).

□ 강론



사랑은 살아 있는 것

성 태 수 신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쓰고 듣는 말-‘사랑’이다.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이 ‘사랑’은 말이나 이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죽어있는 빈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몸과 몸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계명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다. 그러나, 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가? 그것은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나’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사랑이 ‘나’ 안에 갇혀 폐쇄된 사랑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숨통을 스스로 조이고 있는 것이다. ‘나’ 안의 사랑은 하느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계명이다.

사랑의 이중 계명-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은 틀이 아니라 하나이다.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기”(마태 25, 40) 때문이다. 또한 사랑의 이중계명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참다운 사랑은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지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바보스럽고 미련하게까지 보이는 것이다. 왼수를 사랑하고, 길옆까지 주고, 10리를 가주고, 오른쪽 뺨만 아니라 왼쪽 뺨마저 대주는 일이 어찌. 제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버려진 생명들과 몇시간 후면 죽어갈 생명들을 왜 그렇게 귀중하게 여집니까?”라는 질문에 “모든 생명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고 사랑받고 있기에 모두 사랑답게 살아야 하지요. 비록 그 아이들이나 버림받은 이들이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 죽을 때는 사람답게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대답하시는 인도 켈카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다. 그분은 특별히 보잘것 없는 이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다. “주여,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이웃 안에 감추어 계신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사랑만이 당신을 만나는 길이요, 당신과 하나되는 길임을 체득케 하소서.” (진안천주교회)



도둑이야기

-천국을 훔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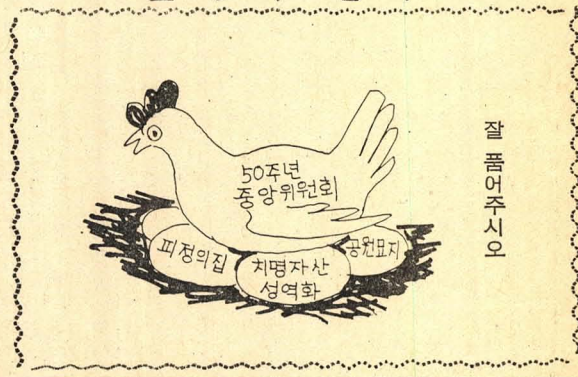
요사이 신문을 보면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그 주종을 이룬다. 정부형태가 어떻고, 지방자치제가 어떻고...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로 건설부 고위공무원들이 부정을 해 먹었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단공무원은 4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워서 주인 손에 넘겨 주었다고 한다. 그는 바보처럼 풀러들어온 복을 밟로 차 버렸는가?

“남의 재물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는 따위의 나쁜 행위, 또는 그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盜賊)이라 부른다. 5·16 군사혁명 직후의 4대 의혹사건(증권과동·회전당구·새나라 자동차·위키벌)과 3분(밀가루·설탕·시멘트) 폭리사건, 70년대의 8개 은행에서 74억원을 부정대출받은 박영복사건, 그리고 80년대의 장영자 부부의 1천억대 어음사기사건 등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는 인정받는 도둑질도 있다. 야구경기에서의 도루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몇년간 그 도루왕의 자리를 지킨 선수의 이름앞에 대도(大盜)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는 고위공직자들의 집단을 턴 조모라는 도둑을 대도라고 불러주기도 했다. 후자의 대도는 성실하게 사는 서민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돈을 모은 것들만을 털었대서 그 급수를 올려준 것이리라. 어찌서 우리네는 의적(義賊...부정하게 모은 사람의 재물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의로운 도적)에게는 박수를 보내는가?

세상에서 나라를 훔치는 도적이 가장 큰도둑이고, 그걸 실패한 사람을 우리는 역적(逆賊)이라고 부른다. 어찌보면 백지 한 장 차이다. 이 세상의 도둑들이여, 천국을 훔칠 마음은 없는가?

숨 정 이 산책



50주년 기념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지난 7월 1일(화) 개최된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중앙위원회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50주년 제반 상황보고(사무처)

- 가. 피정의집 최종 세부설계 완료, 업자선정 및 허가 신청중임
- 나. 전주시 공원과 계획에 따른 치명자산 성역화 계획 안을 시청에 제출
- 다. 50주년 홍보용, 교육용 책자발행은 8월말까지 출판완료 예정으로 준비중
- 라. 피정의집 신축을 위한 로마 보조 35,000\$ 접수
- 마. 피정의집 대형 조감도를 천호성지에 비치하고, 순례의 길 안내 표시판 설치중
- 바. 재경 전주교구 출신 신자들 기념대회 참여 순례단 조직을 위한 월례미사 실시 상황보고
- 사. 천호산 종합성역화 및 교회 공원표지 시안 준비중

2. 토의안건 의결사항

- 가. 50주년 기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오는 8월 31일(연중 22주) 주일을 50주년 특별 홍보주일로 정하고 모든 본당에서 강론을 하기로 한다.
- 나. 오는 9월 1일부터 50주년 행사를 마칠 때까지 전 교구민을 대상으로 성지순례(여산↔천호; 순정이↔치명자산)를 실시하며 10만명 성지순례자를 목표로 그 실현을 위한 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토록 한다. 순례자들에게 특별대사(은사)를

- 부여하기로 하고 그 세부지침은 차후 통보한다.
- 다. 순교정신 계몽을 위한 강연회를 대립시기에 지구단위로 실시하며 접하여 순교자·사료 순회 전시회를 갖는다.
- 라. 치명자산 성역화는 '89 국제 성체대회에 참석하는 외국순례단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연차계획 시안을 상임위에서 구상토록 한다.
- 마. 신심단체별 50주년기념 계획안을 사무처에 제출하여 종합계획은 마련토록 한다.
- 바. 50주년 기도문은 모든 공식적인 모임과 매 미사때에 봉송토록 함을 재확인한다.
- 사. 50주년을 기념하는 사목교서의 초안준비를 정신분과에 일임한다.
- 아. 월보 "밝히오리다"에 50주년 특별헌금과 본당분담금 납입상황을 공지하도록 한다.
- 자. 50주년 공문 86-2호 6항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장애자, 양노원 등)에 관한 계획안은 사회복지에서 안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제출토록 한다.
- 차. 반모임 월보에 순교정신 선양에 중점을 두어 발간하고 반모임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 정 일 주교

성서교실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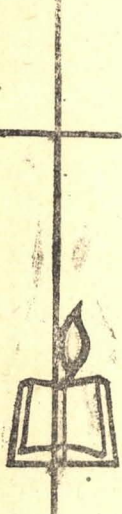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루가 10:29)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루가의 특종기사(記事)이다. 이것은 지극히 루가적인 것으로, 루가가 아니면 다분히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특징적인 것이 있다.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그 정의(定義)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의 예(例)를 들어 설명한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레아」(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레위 19:18). 「레아」는 「동족에게 양식을 풀어 원수를 갚지 말라」(레위 19:18)는 것처럼, 동국(同國) 사람이다. 그러나 국내에 사는 「게르」(타국인)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레위 19:34). 그런데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 이 「게르」의 범위는 아주 좁아져서, 국내에 사는 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유다교에 귀의해서 세례, 할례를 받는 자 즉 「게르·세메크」(참다운 타국인)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12개월 국내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세례, 할례를 받는 자는 「게르·토샤브」(거주의 타국인)라 일러지고 이것이 「고이」(이교인)와 동일시되었다. 즉 그리스도 시대의 「이웃」이란 결국 「레아」와 「게르·세메크」였다.

예수가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한 것은 우리도 이처럼 하라는 말씀과 함께 29절의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이웃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儀式)과 전례(典禮)가 아닌(마태 12:1-8),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참다운 「이웃」이 되었던 것이다.

바리새이 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다. 예수는 참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는 성직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의 종교에는 사제 레위 사람과 같은 성직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복합·생선 매운탕 전문

자 보 회 관

도청 후문(자동차보험 앞)

☎ 6-3209

김광열(야고버)

김영애(아네스)

명파의 전당

남원 품미당제과

각종빵, 음료수, 선물용 케익, 아이스크림, 밀크셰이크, 팥빙수

(남원 전복은행 옆, 구 궁전제과)

전화 남원 2-2037

손흥섭(카시아노)

이선자(베레사)

희소식!

독사범 물리사람 전문 치료

합. 五代계

연락처: 전주시 전미동1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시내버스 번호 ⑩⑪⑫번차

전화 ⑤ 3544

송 준 의(발라바)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교 구 소 식

- ◎ 알 린 : 7월 20일 휴정이 본당소식은 17일 (휴일) 관계로 15일 (화) 오전까지 보내주세요
 - 1. 교구 혼인법원 : 16일 오전 10시, 교구청 사목국
 - 2. 전주교구 신학생 연수회 : 12일~15일, 장소-고산 삼기리
 - 3. 평택희장단 연수회 및 임시총회의 건 :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자-본당 사목회장 단체장, 간단한 복장
 - 4. 전주 파티마의모후 레지아 제1차 제5기 간부피정
17일 9시 30분~17시, 대상-간부 및 간부 후보자
 - 5. 7월중 레지아회의 : 20일 14시, 대상-산하 평의회간부 및 직속부제시디움 간부전원
 - 6. 사제 어머니모임 : 21일 오후 2시, 장소-신수당 (강덕행 신부님 어머니님)
 - 7.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형제를 초대합니다
남자 고등학교생-25일~27일 (2박3일), 참가비-3천원
대학·일반인 (남)-8월 7일~10일 (3박4일), 참가비-5천원, 장소-경남 산청 성심원
연락처 : 100 서울 중구 정동 17번지 프란치스코수도회 성소담당자
(02) 753-4637 · 753-4690
 - 8. M·B·W 기초 공동체 코스 : 8월 6일 오후 4시~9일 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참가비-25,000원, 대상-수도자·교리교사·사목위원
및 일반 남녀, 신청마감-7월 24일까지 교육국 (5-0041)
 - 9. 주 소 본 경 : 이순성 신부님 Rev. Peter Rhee
Holy Spirit Naamsestraat 40
B-3000 Leuven BELGIUM
 - 10. 레지오 마리애 전주 레지아 사무실 개설 및 전화가설 안내
사무실 (7월 1일자로 개설) -전통천주교회 사목회사무실 2층 (연락사무실-가톨릭센
터 3층, 전화 83-5 0 8 5
 - 11. 1지구 중·고 하기 캠프 : 장소-고산, 일시-28일~30일, 대상-중·고생
- 축! 영명 (15일) : 성 보나벤투라-이수현 신부님 축하합니다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63 : 1~8 복음 : 루가 12 : 54~56

♣ 잡 간 !

교리교사 연수회 무사히...

교리교사 연수회가 무사히 끝났다. 예년에 비해 하루가 더 계획된 3박4일 (7월 5일~8일) 화산 나바위성당에서 교구내 각 본당에서 모인 교사 260여명이 참여, 정황을 이뤘다. 금번 연수회는 교구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여성성경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특히 교사들의 영성의 깊이를 위한 영성특강이 아주 좋았다는 교사들의 후평. 교사연합회에서는 교재 신청을 (현재 어린이용 8,000부, 교사용 800부) 아직 못한 본당은 빠른 시일내에 교구 홍보국에 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장마비를 요행히 피해 무사히 끝낸 연수회에 대해 누가,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는데, 감히... 하면서도 새삼스럽게 하느님께 감사하며 연수회 때마다 으레 땅바닥(?) 신세를 면치 못하는 남자 교사들은 하루빨리 교육센터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기도...

이제 실제로 각 본당에서 본당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할 교사들에게 격려보낸다.

신앙쇄신교육...

지난 5월부터 매주 두 차례씩 전신자를 대상으로 신앙강화를 실시, 7월 17일에 끝내게 되는 휴정이본당 (주임 : 나궁렬 신부)의 호뭇한 소식이다.

성서를 비롯하여 교회법, 교회사, 마리아론, 성사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영화, 비디오, 슬라이드 등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살린 신신앙교육이었다고 모두들 만족, 특히 강의후 그룹토론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쇠신해야 할 문제들, 세례후 무디어진 신앙감각에 대한 새로움, 교회운영문제 등 신앙인으로서 자아반성과 함께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교회는 끊임없이 쇠신되어야겠지만 뛰니 뛰니해도 이런 신자들의 재교육이 아닐까? 문제는 아무리 좋은 잔치상이라도 먹을 사람이 없을 때... 본당마다 열리는 교육에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더 아쉬운 시대다.

요십이 (675) 김병오



복지회 회원모집

노인을 모신 가정에서는 필히 본회에 가입하시어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크리스찬적인 상부상조 정신이 돈독해지리라 믿습니다.

◎ 본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남녀 60세부터 75세)

◎ 본회 상조방법과 절차

* 본회 회원은 각조 1,000명 으로 구성하며 회원 1인 사망시 상조금 1,000원을 본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

* 가입후 100일이 지나 사망할 경우 정성된 성금(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천주교 노인복지회

대표 임화길 (안드레아) 신부
강현홍 (사도요한) 신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95-8 (서정빌딩 221호)

접수·문의 : 서울 (02) 752-2407

김 안 과 의 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 호 열 · 전 은 주 (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외과전문의
소 흥 영 (요 한)
유 인 경 (유리안나)
전주시 서소동 602-21
(전주시청 앞)
병원 ☎ 3668
자택 ☎ 8120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동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축! 본당신부님 영명축하식: 오늘 공식미사 중에 우리 본당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부님을 위해 모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소(결혼, 평신도사도직)와 특수성소(성직, 수도직)에 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3. 교직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초·중·고 대학의 선생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꾸리아 월례회: 20일 오후 2시로 연기합니다 각팀의 간부님을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당신부님배 낚시대회: 17일 오전 6시30분 출발 장소-운암저수지, 접수마감-13일까지 참가비-1인당 5천원, 참가대상-17세이상의 남녀
 6. 불우시설 방문: 오늘 오후 1시, 본당에 직접 학생회에서 자원원을 방문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 공소 순회미사: 19일 저녁 8시, 왕정리공소
 8. 금주전례: 해설-임영빈, 독서-봉헌-신용진 부부 신자기도-박춘근 부부, 촛불봉헌-김용기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종구, 독서-봉헌-임철환 부부 신자기도-김환장 부부, 촛불봉헌-이대환부부
- 지난주 봉헌금: 613,860원 교무금: 597,300원
신축금: 83,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 "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2-5238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성우회 단합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부녀회: 17일 오전 10시
 4. 첫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4시
 5.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21일~26일 오전 9시~12시 부모님들 빠지지 않도록 보내주세요
 6. 주일미사 절대로 결하지 마세요, 의무입니다
 7. 교무금 주납부금 미수가 없도록 완납바랍니다
 8. 복자신용협동조합은 교회조합(복자성당 신자들의 조합)입니다: 가입 안되신 분들은 가입하시어 도움주교 도움 받으세요
 9. 교리교사 연수회(3박4일): 무사히 마쳤습니다
 10.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김운자 ②조성호 봉헌-안운정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김성원 ②이기배 봉헌-이정호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4,120원 교무금: 543,87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1. 울뜨레아: 16일 저녁
 2. 우정의날: 30일(마지막 수요일) 냉담자를 위한 기도의날
 3. 공사헌금: 협조해 주세요
 4. 교무금 납부확인: 구역장님 각 교우의 교무금 실태를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세요
 5. 숲정이 은인: 사무실에서 항상 접수합니다
 6. 주일미사: 절대 빠지지 맙시다 ※ 신자의 의무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1,324원 교무금: 99,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덕 창
사무실 "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반장님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프란치스코 형제회: 오늘 오후 1시
 3. 성심회: 16일 오후 2시
 4. 사제양성 후원금 신입자: 정만성-1구좌, 김배숙-1만원, 이소남-5천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함육식 5천원을 3만원으로 정정합니다
 5. 감실 구입헌금: 박형식-1만원, 김낙균-1만원, 익명-1만원 감사합니다
 6. 2성당 성인 예비자교리: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음
 7. 첫영성체: 본당 어린이 첫영성체식이 오늘 공식미사 중에 있습니다
 8.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21일부터 25일까지 있으니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9. 금주봉헌: 본당-유용산 부부, 2성당-송남용 부부 차주봉헌: 본당-김한기 부부, 2성당-오수환 부부
 10. 차주전례: 본당: 해설-김은경, 독서-①진성복 ②김낙균 2성당: 해설-함문권, 독서-①김광택 ②김화영
- 지난주 봉헌금: 본당-272,620원, 2성당-129,930원
계-402,550원 교무금: 270,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병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사무실 83-5085번

1. 자모회: 공식미사 후
 2. 전동 울뜨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화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레지아: 다음주 오후 2시
 5. 주일학교 하계교리: 21일~26일 방학 교리책 판매-300원
 6. 중·고생 하키캠프: 28일~30일(2박3일) 장소-고산 비봉, 신청기간-13일~20일, 접수처-주일학교 2층 중고교무실 ※ 신청서는 중·고 교무실에 있습니다
 7. 감사: 스테인드글라스 대금-홍마리아·이안나·방 세시리아(각 50만원)
성당 14처상본 보수-유영문·유미선,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78,140원 교무금: 710,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호자 18기 영세자(80명) 일동: 영세 기념품비-52만원
 2. 사목회 임원들: 본당신부 하복 1벌, 구두
 3. 자모회: 본당신부 여름 수단
 4. 중·고생 하키수련대회: 28일~30일
 5. 예교: ①신자 전화번호호부 작성 ②각 단체 가입신청서 접수
 6. 축! 결혼: 13일 오후 1시, 전동성당 신랑-정대경(요아킴), 신부-강문숙(안나)
- 지난주 봉헌금: 807,590원 교무금: 719,000원